



## 미 증시, 경기연착륙 기대감 유입되며 상승 마감

### 미국 증시 리뷰

5일(월) 미국 증시는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며 우려가 해소된 가운데, ISM 서비스업 지수 부진, OPEC+의 감산 결정으로 인한 유가 상승,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소폭 하락 마감(다우 -0.6%, S&P500 -0.2%, 나스닥 -0.1%). 6일(화) 미국 증시는 ISM 서비스업지수 부진, 엔비디아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도, 세계은행에서 미국 경제성장을 상향 조정하고 연준 금리 동결 기대감 및경기 연착륙 가능성 부각되며 상승 마감. (다우 +0.03%, S&P500 +0.24%, 나스닥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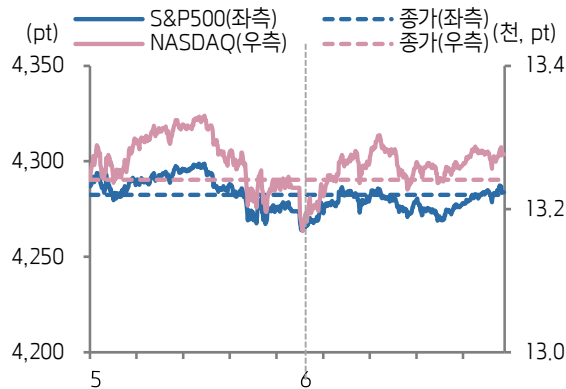
미국 5 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50.3(예상 52.2, 전월 51.9) 기록하며 기준선은 상회했으나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 고용지수는전월 50.8 에서 49.2 로 하락했고, 지불가격지수 51.9 에서 50.3, 신규주문지수 56.1 에서 52.9 로 큰폭 하락. 미국 4 월 제조업수주는 전월대비 0.4%(예상 0.8%, 전월 0.6%), 내구재 주문은 전월대비 1.1%(예상 1.1%, 전월 1.1%), 운송을 제외한 내구재주문은 -0.3%(예상 -0.2%, 전월 -0.2%)로 부진.

OPEC+ 정례회의에서 사우디는 7 월부터 하루 100 만 배럴의 추가 감산 단행한다고 발표. 사우디의 감산 압박에도 아프리카 등의 반발로 다른 원유 수출국들은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기존의 감산 규모를 내년 말까지 연장. 지난 4 월 감산 발표에도 국제 유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언급. 발표 직후 WTI 는 70 달러대로 급등했으나 이후 4 거래일만에 하락 전환.

세계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0.4%p 상향조정했으나, 24 년 경제성장률은 1 월 2.7%에서 2.4%로 하향조정.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성장률은 22 년 4.1%에서 올해 2.9%로 둔화, 선진국 역시 22 년 2.6%에서 0.7%로 둔화될것으로 전망. 미국은 1 월 0.5%에서 1.1%, 중국은 1 월 4.3%에서 5.6%로 상향. "통화 긴축과 신용 제한의 효과로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성장이 둔화되고 내년에도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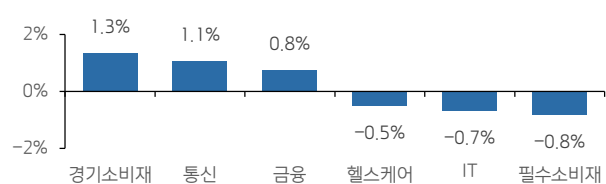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향후 1 년 이내에 경기침체를 겪을 확률을 35%에서 25%로 하향조정. 초당적인 예산 합의로 향후 2 년 동안 지출이 소폭이 줄어들고, 이는 전반적인 재정충격을 중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 은행 스트레스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지방은행 주가가 안정되고, 예금 유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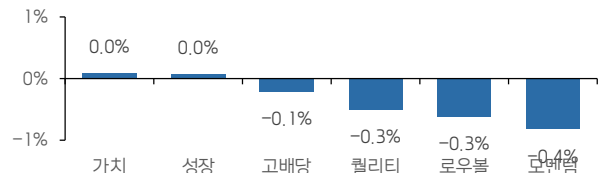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15.41	+0.54%	USD/KRW	1,298.14	-0.53%
코스피 200	343.91	+0.36%	달러 지수	104.14	+0.12%
코스닥	870.28	+0.26%	EUR/USD	1.07	-0.17%
코스닥 150	1,321.87	-0.22%	USD/CNH	7.13	+0.15%
S&P500	4,283.85	+0.24%	USD/JPY	139.59	+0.01%
NASDAQ	13,276.42	+0.36%	채권시장		
다우	33,573.28	+0.03%	국고채 3년	3.500	+2bp
VIX	13.96	-5.23%	국고채 10년	3.550	+0bp
러셀 2000	1,855.40	+2.69%	미국 국채 2년	4.479	-1.8bp
필라. 반도체	3,488.34	+1.28%	미국 국채 10년	3.660	-3.1bp
다우 운송	14,061.15	+0.51%	미국 국채 30년	3.861	-2.9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95.22	-0.65%	WTI	71.58	-0.79%
MSCI 전세계 지수	664.49	+0.19%	브렌트유	72.66	-1.2%
MSCI DM 지수	2,877.97	+0.16%	금	1979.7	+0.27%
MSCI EM 지수	988.49	+0.42%	은	23.59	+1.5%
MSCI 한국 ETF	65.70	+0.83%	구리	363.7	-0.7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8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97.6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세계은행의 전세계 성장률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민감주 강세 여부 2. 애플 MR 기기 출시가 국내 관련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 3.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 수출입 지표 결과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증시를 둘러싼 제반 환경을 살펴보면,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코스피, 나스닥 등 주요국 증시의 건조한 주가 흐름에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 하지만 (지금 당장에 반영되는 재료가 아닐지라도) 연내 금리인하의 현실화를 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기대감이 차츰 후퇴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후퇴 등 연준 긴축 사이클 종료 시점의 지연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지난 2 거래일동안 있었던 호주중앙은행(RBA)의 추가 금리인상, WBA의 미국(기준 0.5% →) 수정 1.1%), 중국(4.3% →) 5.6%) 등 전세계(1.8% →) 2.1%) 성장률 상향 조정 등이 해당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는 모습.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약 연내 혹은 늦어도 내년 초 금리인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바뀐다면 증시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 일례로, 확률 자체는 베틱 사이트의 그것과 비슷하게 수시로 급변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대략적인 분위기 정도는 파악 가능한 CME Fed watch 상 12월 FOMC 기준금리 상단 전망치(현재 5.2%)은 1개월전만해도 4.5%가 컨센서스(확률 49.5%, 현재 0.2%)였으나, 현재는 5.25%(확률 44.0%, 1개월 전 0.1%)로 컨센서스가 옮겨간 상황. 더 나아가, RBA 뿐만 아니라 ECB(15일, 25bp 추가 인상 예상), BOE(22일, 25bp 추가 인상 예상) 등 다른 메이저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연준만 긴축 중단 후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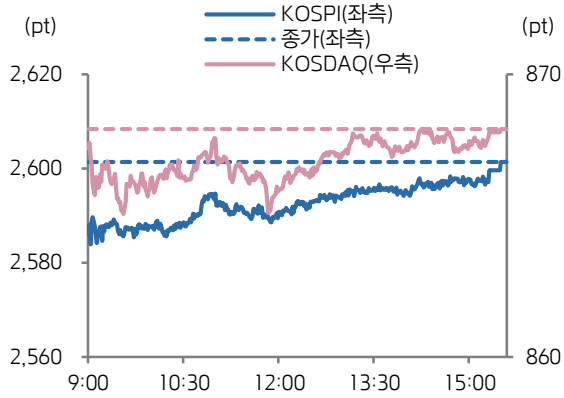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RBA의 2개월 연속 추가 금리인상 배경이 호주의 4월 소비자물가(6.8%YoY, 컨센 6.4%)가 유류세 인상 등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 기인했다는 것(호주 재무장관이 RBA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호주국민들이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호주와 달리 잡혀가고 있는 or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하락하고 있든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지난 1일 5월 ISM 제조업 PMI 상 가격지수(4월 53.2 →) 5월 44.2%)가 급락한데 이어, 5일 발표된 ISM 서비스업 PMI 상 가격지수(59.6 →) 56.4)도 하락하는 등 실제 인플레이션의 선행하는 해당 지표들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음.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 상 5월 CPI 전망치가 4.1%, 6월 CPI 전망치가 3.1%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 연준의 긴축 중단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 이를 종합해봤을 때,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나 여타 중앙은행들의 행보, 데이터에 따라 “연준 긴축 종료 기대 강화 → 연준 긴축 지속 우려 → 연준 긴축 중단 가능성 재확대” 등과 같이 시장의 초점은 수시로 이동하겠으나, 연준 긴축 중단을 베이스 경로로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지난 월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부채한도 상향 소식, 미 5월 고용지표 결과 등을 긍정적인 미국발 재료에 힘입어 철강, 기계 등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5%, 코스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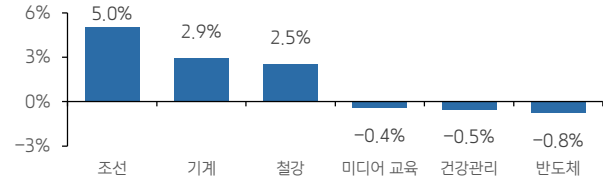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둔화, RBA의 추가 금리인상, 세계은행의 성장률 전망 상향 등 국내 휴장기간 동안 발생한 대외 상하방 재료들을 소화하면서 강보합 출발 이후 장중 중국 수출입 지표에 영향을 받는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성장 전망 개선 등으로 그간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이 지난 월요일에 이어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 또 애플은 2거래일간 약보합세를 기록했으나, 이틀 전일 개발자회의에서 공개한 MR 기기인 ‘비전 프로’가 국내 디스플레이, AR 등 애플 관련주들의 투자심리 호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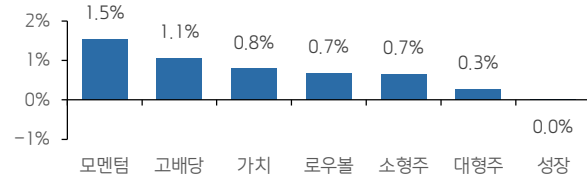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